

설교제목: “주의 말씀”

설교본문: 시편 119 편 103~105 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맛이 달다.

119:103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람은 안전한 음식과 그렇지 않을 것을 그 맛으로 구별해 낼 수 있다. 일단 먹을 만한 것은 안전한 것이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예외도 있다.

사람의 영적 배고픔과 갈증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영적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것들을 찾아 만들어냈어 자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고 있다.

과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영적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자.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교양서가 아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사는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일 앞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이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달고 단 말씀임을 믿자.

성경 곧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말씀임을 믿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119:104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거울은 내 추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거울은 내 추한 모습을 아름답게 가꿀 때 절대적으로 도움을 준다.

거울은 앞만 보고 사는 나에게 내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앞만 보고 사는 내 인생 배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켜 주심을 보게 한다.

성경을 많이 읽자.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읽자. 읽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 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 밖으로 갑자기 나와 나에게 능력이 되는 날이 온다.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는 많은 신령한 주의 종들을 보내셨다.

사단 역시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하여 우리를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실족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는 함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도우신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환하게 하는 빛이다.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옛 예루살렘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구불구불한 길, 거기에 이리저리 돌이 많이 박혀 있는 길을 걸어야 했다.

낮에는 그래도 문제가 없지만 밤에는 등불이 없으면 쉽게 그 길을 따라 성전까지 갈 수가 없었다. 성전으로 가는 길 외에도 많은 길이 그리 잘 다듬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밤길에는 반드시 등이 저들에게 필요했다.

인생 길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인생 길은 어둠 속 돌이 곳곳에 삐죽삐죽 나온 거친 길이다 생각된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길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

어둠 속의 길, 거친 길을 가려면 빛이 있어야 한다.

다른 것은 빛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 되어 내 인생 앞길을 비춰 준다.

세상 사람들은 용감하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환히 비춰 주는 빛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달려 나간다. 잘도 달려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비참하게 된다.

빛이 있어야 바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지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없이 나는 잘 달려 나간다 하며 달려간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그 길 끝이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 길 끝에서는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 길만이 바른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삶만이 참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열매가 있다.